

포스코 책임규명은 나중, 우선 복구부터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침하사고가 발생한 광양매립장에 대한 물막이벽을 설치하는 등 후속대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5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광양매립장 침하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한국지반공학회의 원인 규명을 위한 세부적인 조사가 진행돼 왔다. 또 10월 20일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련기관과 기업들이 후속 대책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조사와 검찰수사가 진행중 이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적극적인 후속조치 추진에 따라 광양제철소도 책임여부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하기로 하고

동호안 제방 2차봉괴 막기 물막이벽 설치

사고원인 결과 따라 공사비 용은 정 산 키로

세부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광양제철소가 시행기로 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인선ENT 매립장의 2차봉괴를 예방하기 위해 반대편 응기지점에 압성토를 시공하는 계획이며, 둘째는 침출수의 해양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장 3~5단계 구간에 지중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당연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당연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지만,

내어 하중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선ENT 매립장 3단계 구간에는 11m의 매립률이 쌓여 있으나, 하중에 따른 2차 봉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로 2m 가량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매립장 소유주인 인선ENT측에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사고원인 규명에 앞서 피해확산 방지 및 추가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후속대책으로, 향후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분담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만, 광양제철소가 후속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향후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비용을 부담하기로 주무관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선ENT 3단계 매립장의 하중을 경감시켜 2차 봉괴를 예방하는 대책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침하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인선ENT 매립장 4단계 지역이었고, 사고 직후 이 4단계 구역의 적재된 폐기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으나, 추가로

매립장 3단계 구간도 폐기물을 걷어내는 작업을 했으나, 추가로



대나무에 감이(?)… 관광객 신기하네

25일 함평군 신광면 함평자연생태공원에 빛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대나무 터널이 등장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함평군 제공>

가을철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 잡은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29일 관람객을 맞이한다.

“테라피 고장·백신 특구 만들 것”

전완준 화순군수 취임 3주년 성과와 비전

전완준(51) 화순군수가 27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 건설’을 기치로 내걸며 발전전략인 비전1030 실현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저돌적인 투심으로 지난 3년간을 숨기쁘게 달려온 그는 이제 화순군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군수’로 각인됐다.

전 군수는 화순의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저탄소 녹색 성장의 모델 도시인 그린 시티(Green City)를 건설하겠다는 신념으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테라피(therapy) 화순’ 브랜드를 선보였다.

전 군수는 “화순은 녹십자 백신 공장과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문화유산이 많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레저, 휴식 공간이 많아 몸과 마음의 병을 모조리 치유하는 테라피 고장”이라며 “우리나라 백신 주권을 이룩한 백신 특구로 발전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민들 또한 이런 지역발전 전



략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하니움을 중심으로 한 2009 화순풍류문화관과 화순전남대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문화유산이 많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레저, 휴식 공간이 많아 몸과 마음의 병을 모조리 치유하는 테라피 고장”이라며 “우리나라 백신 주권을 이룩한 백신 특구로 발전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민들 또한 이런 지역발전 전

나라’ 서각, 한옥의 전통미가 물씬 풍기는 회랑 등을 둘러보며 지역 발전의 생생한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화순의 ‘랜드마크’ 하니움 개관에 이어 노인복지센터가 다음달에 준공된다. 화순농업발전의 요람으로 성장할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8월에 문을 열고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모델을 이뤄가고 있다.

이렇듯 전 군수의 취임 이래 3년 만에 화순은 놀랄게 발전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지역발전의 토대를 닦고, 지역 이미지를 전국에 넓치며 군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전 군수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광주 도시철도 화순 연장, 브리운호페 연구소 화순 유치 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전 군수는 “하니움 개관으로 군민들의 표정이 변하고, 화순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졌다”며 “지역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열원을 모아 다가오는 농촌관광, 보건관광, 체험관광, 생태관광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 차상위계층에 양곡 절반가격 공급

나주시가 생활이 어려운 관내 차상위 복지수급자에 대해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연중 공급,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연초부터 차상위 복지수급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각 관내 19개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다음달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택배서비스로 양곡을 전달하고 있다.

양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관내 차상위계층으로서 기준 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기구, 한부모 가정,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2층 보육료 지원대상가구, 차상위 자활가구, 차상

위 장애수당수급자 등이다. 이번 차상위 지원 제도를 통해 차상위 복지수급자가 20kg 1포대 가격의 50%인 2만700원 부담하면 연중 택배로 양곡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차상위 복지수급자들에게 직접 안내 서한문을 보내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주시 나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들에게 복지 지원 제도를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많은 혜택을 받아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최승렬기자 srchoi@

장성, 우리밀 우량종자 직접 생산·공급

장성군이 보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소득작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우리밀의 우량종자를 직접 생산, 공급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남면 월정단지와 황룡면 황룡단지 등 2개소 27.8ha의 면적에 고품질 우리 밀 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단지를 조성한다.

군 관계자는 “채종단지에서 125t의 우량종자를 수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종자를 생산, 공급 할 수 있어 우리 지역 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은 ha당 100만원의 예산을 비롯

해 포장관리, 건조비용, 수매용 포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채종단지에서 생산한 종자는 우리밀 협동조합·지역농협과 계약 재배를 통해 전량 수매해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채종단지에서 125t의 우량종자를 수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품질의 종자를 생산, 공급 할 수 있어 우리 지역 밀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대나무에 감이(?)… 관광객 신기하네

25일 함평군 신광면 함평자연생태공원에 빛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대나무 터널이 등장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함평군 제공>

가을철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자리 잡은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29일 관람객을 맞이한다.

함평의 가을은 국화 천지

29일부터 엑스포공원서 ‘국향대전’

화작품 전시관, 나비·곤충표본관, 곤충학 교등 실내 전시관과 전통곡물 화분, 억새 분화, 호박터널, 가을산경 등 가을 분위기를 연출한 공간 등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국향대전의 백미인 국화작품 전시관에는 국화 분체, 입국, 현애국, 다룬대작, 입국다간작, 복조작 등 전문기술이 도입된 수Jacobin의 수준높은 국화 작품이 전시된다.

나비생태관에서는 국화동화회원들이 1년여 동안 정성들여 기운 550여 점의 국화작품 분체 등이 전시되며 뛰어난 기술과 네발나비 등 총 11종 1만여 마리의 가을 곤충을 만나는 놀랄만한 나비관 등도 운영된다.

또 나비생태관, 원예치료관, 국

화작품 전시관, 나비·곤충표본관, 곤충학 교등 실내 전시관과 전통곡물 화분, 억새 분화, 호박터널, 가을산경 등 가을 분위기를 연출한 공간 등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함평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25일간 159만m²의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09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개최한다.

‘만추(晚秋)의 심향(深香)’ 그리고 굴기(屈起)의 ‘늦가을은 수Jacobin의 수준높은 국화 작품이 전시된다.

나비생태관에서는 국화동화회원들이 1년여 동안 정성들여 기운 550여 점의 국화작품 분체 등이 전시되며 뛰어난 기술과 네발나비 등 총 11종 1만여 마리의 가을 곤충을 만나는 놀랄만한 나비관 등도 운영된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SOS 지리산’

시민단체, 지리산 살리기 행사

지리산을 사랑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리산 살리기’에 나섰다.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는 25일 오후 2시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서 지리산의 위기를 알리기 위한 ‘SOS 지리산-지리산의 위기를 알리는 대형 풍선 피우기와 봉화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리산 자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SOS 지리산’이라는 글씨가 쓰인 대형 풍선을 피우고, 반야봉에서 산신시위를 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봉화를 꽂았다.

일부 회원들은 지난 12일부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자연공원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지리산 천왕봉, 반야봉, 노고단 등지에서 무기한 산상시위에 돌입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금 매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6-2 백악관 예식장

■ 대지면적 : 1770㎡(535평)

■ 지 역 : 준 주거지역

■ 건축면적

구 분	면 적(m ²)	용 도
지 하 1층	1147.07	주차장
1층	584.2	휴게음식점 외
2층	584.2	예식장
3층	493.65	예식장
4층	493.65	식당
5층	493.65	식당
계	3796(1148평)	

■ 추천용도

- 예식장, 병원, 교회, 학원, 대형마트
사우나, 체육시설 등

■ 매매가 : 23억(대출금 13억 포함)

상담 전화 011-625-8153

正心 正視 正行

명당 공안증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대표: 성 불 규 (임원 등록번호 16-07-29)

전 대한민국인증기사회회원 광주지부장

전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 재직교수

전 시립 365-3171 지구 산학연계원장

전 경상남도 재정감사원장

전 서광시 대체임원장

전 전남 대체임원장

전남 담양군 담양읍 허재현

임야 53,497㎡(161,809평), 평당 2만5천원

-현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파누